연구 노트

북한의 교역 현황과 전망

최 세 균* 김 운 근**

1. 머리말
2. 북한의 교역규모
3. 북한의 수출구조
4. 북한의 수입구조
5. 북한의 주요국별 교역
6. 북한의 교역 전망

1. 머리말

동서냉전체제의 종식과 최근의 북·미(北·美) 핵협상 타결로 남북한간에도 새로운 상황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1994년 11월 정부의 「對北經濟活性化宣言」과 「南北經協活性化措置」 이후 남북한간에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을 내세워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커다란 정책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낙후된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개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탈이념화와 동서화합시대에 대한 효율적 대응, 선진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통한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북한의 내부변화에 비추어 남북한간에도 종전의 소극적인 경제교류협력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류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성있는 상품의 개발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전에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교역현황과

* 부연구위원
** 수석연구위원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향후 북한의 교역정책 변화를 전망하는데에 그칠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 북한의 교역규모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해 왔다. 1960년대 초까지 북한은 교역의 90% 이상을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하였다. 1962년 중·소분쟁을 계기로 교역선의 다변화를 추진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교역선 다변화의 대상국들은 영국, 서독,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동지역 및 ASEAN 국가들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시작하여 북한의 교역은 더욱 폭넓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의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재 도입 등을 외채에 크게 의존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기반이 건실하지 못한 북한에 있어서 외채부담은 경제성장과 대외신용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1980년대 초반에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북한은 합영법을 공포하는 등 경제개방화를 추진하고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1986년에 들어와서야 1980년의 교역규모를 회복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대외경협과 무역의 확대·발전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역규모는 1987년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것을 비롯하여 1990년까지 성장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 11월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체계가 붕괴함으로써 북한의 교역규모는 급격히 축소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오던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이 대외무역의 기본을 이루어왔다. 북한의 정치·사회 체제의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교역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기존 안정적 교역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심각한 교역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전년대비 교역감소율은 1991년 16.4%, 1992년 3.0%, 1993년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역규모의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교역의 장래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즉, 붕괴된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붕괴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본래의 상태 또는 더욱 발전된 상태의 교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부 옛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경제성장 및 안정이 시작

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어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교역창구를 통해 기존의 교역선을 복구하고 교역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정비가 성과를 거두고, 북한의 기존 교역선 상실에 따른 대응책으로 교역선 다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점차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수출은 1991년 전년대비 51.3% 감소에서 1993년에는 전년대비 10.7% 증가로 반전되었다. 북한의 대외교역 확대 노력은 교역선 다변화, 대외관계 개선, 수입에 따른 외화수요는 수입관련 부문에서 수출을 통해 자체 충당하라는 지침 등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통계는 발표되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크다.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FAO의 "Trade Yearbook"과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등에 있어 편차가 크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자료의 경우 기타 자료에 비해 교역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 50개국 정도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요 교역 상대국 50개국을 포괄할 경우 교역상황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주요 자료원으로 사용하였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경우 북한의 보고에 의존한 것으로 대부분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교역규모는 1988년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해 왔다. 1988년 북한의 교역규모는 47억달러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한의 교역액 1,283억달러의 3.6%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교역규모는 1988년을 정점으로 최근 계속 감소하여 1993년에는 교역규모가 25억달러에 머물렀다. 따라서 남한의 교역규모 1,600억달러의 1.

표 1 **북한의 교역규모**

단위: 백만$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70	719	341	378	-37
1975	1,961	806	1,155	-349
1980	3,354	1,642	1,712	-71
1985	3,185	1,285	1,900	-614
1988	4,666	1,767	2,899	-1,133
1990	4,561	1,820	2,741	-921
1991	2,606	887	1,720	-833
1992	2,477	847	1,629	-782
1993	2,477	938	1,538	-600

자료 : 박 진, 「북한의 교역추이와 전망」, 1994.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표 2 **북한의 상품수출 구조**

단위 : %

류 별	1983	1985	1987	1991
식품, 농림수산물	13.6	10.9	12.4	12.5
비식용 원재료	19.5	19.0	15.6	11.3
광물성 연료, 윤활유	5.5	5.0	5.6	7.2
동식물성 유지	0.0	0.0	0.0	0.0
화학물 및 관련제품	3.7	3.2	2.7	2.5
재료별 제조제품	36.3	38.1	31.3	23.9
기계 및 운수장비	4.9	8.4	10.2	14.8
잡제품	7.0	8.7	13.7	16.0
기타, 미분류	9.5	6.7	8.3	11.7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4.

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북한의 수출규모는 9억달러 수준이고 수입규모는 15억~16억달러로 매년 7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약간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3. 북한의 수출구조

북한의 수출규모는 1990년 18억 2천만달러에서 1993년 9억 3천 8백만달러로 48.5% 감소하였다. 1993년의 상품별 수출구조를 보면, 비금속과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물 수출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1993년의 경우 1억 3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3.9%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무연탄, 고령토 등 광산물의 수출은 7천 8백만달러로 전체의 8.3% 수준이나 차량이나 선박 등 운송장비와 기계류, 전기기기 등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의 상품 수출구조는 1차산업 제품과 단순 가공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전기, 전자, 중화학 제품의 수출은 부진하여 수출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선은 1990년말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주로 소련, 중국, 동구 등에 의존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북한의 수출 의존도는 소련 42%, 중국 15.7%, 동구 10.3%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6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1990년에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련에 대한 수출은 1970년대에 북한의 교역선 다변화 노력에 따른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의 교역확대로 전체 수출의 30%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1980년대에는 50%로 확대되었다.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소련으로 이전된 때문이다.

북한의 1980년대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

표 3 **북한의 주요 수출선별 의존도**(1991년 이전)

단위: %

연 도	구소련	중 국	동 구[1]	일 본	OECD[2]	개발도상국
1970	42.0	15.7	10.3	9.2	19.6	3.0
1975	26.0	24.5	9.3	7.3	12.7	20.1
1980	26.6	18.5	7.6	10.0	16.0	21.3
1985	37.7	19.1	8.0	12.8	5.3	17.1
1990	57.5	6.9	5.1	15.0	5.3	10.2

1) 동독제외
2) 일본제외
자료 : 〈표 1〉과 동일

와 소련에 대한 수출증가는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는 분리하여 자본주의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중국의 경제개혁 조치는 북한이 볼 때 사회주의에 대한 일종의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 개방화 바람이 교역을 통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을 감소시키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1970년대 선호되던 북한 상품이 중국의 상품을 능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한 상품의 필요성이 중국내에서 그만큼 감소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기 전까지의 북한의 주요 수출선별 비중은 〈표 3〉과 같다. 소련과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증가하고 중국 및 동구 국가들 그리고 OECD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인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최근 3년간 북한의 수출선은 큰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구소련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1990년 구소련이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표 4 **북한의 주요 수출선별 의존도**(1991년 이후)

단위 : 천$, %

수출선	1991		1992		1993	
	수 출	구성비	수 출	구성비	수 출	구성비
중 국	85,670	9.1	155,463	16.8	297,290	31.7
일 본	283,547	30.0	257,393	27.9	252,351	26.9
독 일	72,008	7.6	87,160	9.4	72,275	7.7
CIS	171,018	18.1	65,200	7.1	52,290	5.6
인 도	12,473	1.3	10,520	1.1	50,618	5.4
홍 콩	39,800	4.2	48,622	5.3	30,198	3.2
이 란	100,000	10.6	115,000	12.4	30,000	3.2

자료: 〈표 1〉과 동일.

표 5 **북한의 상품 수입구조**, 1993

단위: %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1983	1985	1987	1991
식품, 농림수산물	6.6	3.7	6.0	11.0
비식용 원재료	8.3	8.5	10.1	10.2
광물성 연료, 윤활유	33.4	31.2	32.9	28.7
동식물성 유지	1.0	1.3	0.6	0.5
화학물 및 관련제품	6.8	7.0	5.1	5.2
재료별 제조제품	13.1	14.7	15.8	15.4
기계 및 운수장비	26.2	28.8	26.0	18.9
잡제품	3.5	3.3	2.8	9.7
기타, 미분류	0.9	1.6	0.8	0.4

자료: 〈표 1〉과 동일.

57.5%에 달했다. 그러나 그 비중은 1991년 18.1%, 1993년 5.6%로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90년 6.9%에서 1993년 31.7%로 급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중에 이란과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일본,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 그리고 자본주의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 북한의 수입구조

1993년도 북한의 상품 수입은 산업용 원료, 식품 및 섬유제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운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등 자본재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구조로 볼 때 북한은 유류, 식품, 의류 등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본적 소비재 수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역이 1차산품 내지는 경공업제품 등의 소비재를 수입하고 중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재의 일방적 수입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북한은 최근 3년간 매년 6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총교역규모의 25% 이상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수지의 압박으로 북한은 수입 대체산업 또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발전 초기에 요구되는 자본재의 수입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단기적으로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주요 수입선은 수출의 경우보다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련의 비중이 OECD(일본제외), 일본, 중국 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소련의 붕괴 직전인 1990년의 경우 북한 수출의 55%를 소련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감소한 것은 수출의 경우와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북한의 수입이 소련에 크게 의존하면서 일본, OECD 국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다.

북한의 수입선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표 6 **북한의 주요 수입선별 의존도**(1991년 이전)

단위 : %

연 도	소 련	중 국	동 구	일 본	OECD	개도국
1970	60.9	16.2	6.9	6.8	6.9	2.3
1975	22.4	24.6	7.9	17.3	23.8	4.0
1980	25.9	21.9	7.1	24.1	8.0	22.0
1985	41.3	12.6	4.5	14.3	5.3	22.0
1990	55.3	13.1	4.8	7.1	9.8	9.9

자료 : 〈표 1〉과 동일.

표 7 **북한의 주요 수입선별 의존도**(1991년 이후)

단위 : 천$, %

수입선	1991		1992		1993	
	수 입	구성비	수 입	구성비	수 입	구성비
중 국	524,780	32.0	541,107	34.4	602,350	39.2
CIS	193,725	11.8	277,100	17.6	278,994	18.1
일 본	223,993	13.7	222,894	14.2	219,654	14.3
홍 콩	124,300	7.6	106,988	6.8	78,531	5.1
독 일	48,050	2.9	52,803	3.4	47,237	3.1
싱가폴	37,283	2.3	36,094	2.3	38,267	2.5
이 란	115,000	7.0	140,000	8.9	26,061	1.7

자료: 〈표 1〉과 동일.

로 1991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보다 강한 개혁조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기 시작한 소련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 중국의 경제개혁의 영향으로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온 것과 같은 이유이다. 북한의 수입선은 중국, 기타 개발도상국, OECD국가들로 전환되었다. 1993년도 북한의 수입 의존도는 중국 39.2%, CIS 18.1%, 일본 14.3% 순이다. 이들 3개국의 비중이 71.6%로 수입선이 극히 편중되어 있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1990년까지는 소련 및 동구권 위주였으나 1991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지역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제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아시아 지역 중시 인식 및 그에 따른 정책변화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5. 북한의 주요국별 교역

199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10대 교역국은 중국, 일본, CIS, 독일, 홍콩, 인도, 이란, 싱가폴, 이탈리아, 폴란드의 순이다. 이들 가운데 중국, 일본, CIS 3개국이 북한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비중이 높은 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일본, CIS, 독일, 홍콩 등 상위 5개국이 북한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이다.

5.1 중국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최근 크게 심화되고 있다. 1993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9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규모는 최근 3년간(1991~93) 평균 2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무역수지 적자는 11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북한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8.5%에 해당한다.

북한의 품목별 대중국 수입은 〈표 9〉와 같다. 개별 품목으로는 석유, 옥수수, 유연탄, 전기 및 전자제품, 고무제품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석유는 1억 4천만 달러, 옥수수는 9천만달러가 각각 수입되어 이들 두 품목은 전체 대중국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군별로 볼 때에는 석유, 시멘트 등 광산물 수입이 2억 5천 6백만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농산물과 식품으로 1억 6천 2백만달러이다. 이들 두 품목의 수입이 70%에 이른다. 기계류의 수입은 6.8%에 불과하여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초 소비재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철강, 광산물(철광석, 시멘트 등), 수산물 등을 위주로 1993년의 경우 3억달러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1992년에 비해 91.2%나 증가한 것이다. 급격한 수출증가는 철강의 수출이 급증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철강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북한은 석유와 곡물류의 수입을 철강재 수출로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산물, 농림수산물 등 1차 산품의 수출은

표 8 **북한의 대중국 교역추이**

단위: 천$

연 도	총교역액	북한수출	북한수입	무역수지
1983	530,005	255,407	274,598	-19,191
1984	506,894	276,908	229,986	46,922
1985	488,390	256,920	231,470	25,450
1986	509,390	276,000	233,390	42,610
1987	513,300	236,190	277,110	-40,920
1988	579,020	233,670	345,350	-111,680
1989	562,720	185,350	377,370	-192,020
1990	482,740	124,580	358,160	-232,580
1991	610,450	85,670	524,780	-439,110
1992	696,570	155,463	541,107	-385,644
1993	899,645	297,291	602,354	-305,063

자료: 중국 해관통계, 각년도.

표 9 **북한의 대중국 수입**

단위 : 천 $, %

	1992		1993	
	수입액	비 중	수입액	비 중
농산물 및 식품	136,713	25.3	162,167	26.9
광산물 (석유, 시멘트, 소금 등)	227,323	42.0	256,349	42.6
화학공업 제품 (비료, 화학약품, 염료 등)	25,328	4.7	40,282	6.7
펄프, 종이	6,444	1.2	10,781	1.8
섬유 및 섬유제품	58,157	10.7	33,123	5.5
철금속 및 비철금속 제품 (철강, 철강제품, 아연, 동 등)	17,183	3.2	23,466	3.9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운송기기, 광학기기 등	47,918	8.9	41,040	6.8
기타	22,041	4.1	35,146	5.8
계	541,107	100.0	602,354	100.0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4.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절대액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섬유제품, 기계류, 철강 등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어 수출 상품의 구조는 1차산품에서 2차산품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 가운데서는 수산물과 과실의 수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광산물, 목재, 비료, 철강 등이 있다.

5.2 일본

일본과 북한의 교역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88~93 기간중 교역규모는 5억 6천만달러에서 4억 7천만달러로 16.2% 감소하였다. 이러한 교역규모 감소에는 정치적 이유 이외에 엔고에 따른 일본 상품의 가격상승, 북한의 에너지난 심화와 그에 따른 생산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다. 북한은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1991~93)의 흑자 규모는 1억 3천만달러 정도이다. 북한으로서는 주요 교역국 가운데 유일한 교역수지 흑자 상대국인 일본시장에 대한 교역 규모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기기, 전기제품, 기계류, 섬유,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승용차와 기타 운송기기의 수입은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도 상품별 수입규모를 보면 운송기기 5천 2백만달러, 섬유 5천 7백만달러, 플라스틱 및 고무 1천만달러, 기계류 3천만달러 등이다. 이들 상품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이 내수용 수입이 아니고 중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이다.

일본시장에 대한 북한의 수출품목은 의류, 비철금속, 송이버섯, 무연탄, 수산물 등이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아연괴(2천 5백만

표 10 **북한의 대중국 수출**

단위 : 천 $, %

	1992		1993	
	수출액	비 중	수출액	비 중
농산물 및 식품	19,999	12.9	13,311	4.5
광산물	40,900	26.3	40,275	13.5
화학공업 제품 (비료, 화학공업, 염료 등)	5,468	3.5	4,712	1.6
펄프, 종이	666	0.4	1,256	0.4
섬유 및 섬유제품	1,193	0.8	4,289	1.4
철금속 및 비철금속 제품	74,206	47.7	212,313	71.4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운송기기, 광학기기 등	3,615	2.3	9,506	3.2
기타	9,414	6.1	11,629	3.9
계	155,463	100.0	297,291	100.0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4.

표 11 **북한의 일본과의 무역**

단위 :천$

연 도	총교역액	북한수출	북한수입	무역수지
1983	453,226	126,149	327,077	-200,928
1984	399,937	145,218	254,719	-109,501
1985	426,362	179,293	247,069	-67,776
1986	357,220	173,229	183,971	-10,742
1987	455,483	241,744	213,739	-28,005
1988	563,532	324,649	238,883	85,766
1989	495,679	298,678	197,001	101,677
1990	476,182	300,282	175,900	124,382
1991	507,567	283,547	223,993	59,581
1992	480,287	257,393	222,894	34,499
1993	472,005	252,351	219,654	32,697

자료: 일본관세협회, 「일본무역월표」, 각년도.

달러), 의류 및 섬유(9천 5백만달러), 무연탄(2천만달러), 송이버섯(2천만달러), 대합(1천만달러), 넙치와 가자미(1천 1백만달러) 등이 1993년도 주요 수출품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요 수출품목은 농림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의류의 경우 기술과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수출하는 가공무역 또는 임가공 방식에 의한 것이다.

5.3 독립국가연합(CIS)

독립국가연합의 5개국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작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1992년도의 경우 러시아가 북한과 CIS 교역의

표 12 **북한의 구소련과의 교역추이**

단위 : 백만$

연 도	총교역액	북한수출	북한수입	무역수지
1983	852.9	437.4	388.5	48.9
1984	915.6	447.9	467.7	-19.8
1985	1,349.2	485.1	864.1	-379.0
1986	1,828.5	642.0	1,186.5	-544.5
1987	2,074.1	682.7	1,391.4	-708.7
1988	2,809.0	887.3	1,921.7	-1,034.4
1989	2,531.8	890.7	1,641.1	-750.4
1990	1,141.9	440.5	701.5	-261.0
1991	364.7	171.0	193.7	-22.7
1992	292.3	65.2	227.1	-161.9
1993	340.3	52.3	288.0	-235.7

자료: ン連對外關係省經濟管理總局, 「ン連の外國貿易」, 각년도.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과 카작스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3년의 경우 러시아의 비중은 67%로 감소하였다. 북한은 CIS와의 교역에서 최근 연평균 2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에 있어서 국가차관 형식으로 수입비용을 충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체제개혁 이후에는 경화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수입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북한의 최근 CIS에 대한 교역규모는 1992년 2억 9천만달러, 1993년 3억 4천만달러 등으로 최대 교역규모를 나타냈던 1988년의 28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북한의 CIS에 대한 수출은 1993년의 경우 5천 2백만달러, 수입은 2억 9천만달러 수준이다. 러시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염료(2천 4백만달러), 석탄(1천5백만달러), 비료(6백 5십만달러), 철강류(7천 2백만달러), 운송기기(2천 2백만달러), 철강류(7천 2백만달러), 운송기기(2천2백만달러), 원유(6백만달러) 등이다.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가죽제품(1백 6십만달러), 의류(2백 8십만달러), 기계류(4백 2십만달러), 전기제품(6백 5십만달러), 운송기기(1백 3십만달러) 등이다.

5.4 독 일

독일은 과거 동독과 북한과의 교역을 바탕으로 북한과 상당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독일의 교역규모는 1990년 1억달러에서 1993년 1억2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독일과의 교역에 있어서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흑자규모는 1990년 4백만달러, 1993년 2천 5백만달로 큰 규모는 아니다.

양국간의 최대 교역분야는 의류로 대부분 임가공 형태로 북한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독일에 대한 수출은 1990년 5천 4백만달러에서 1993년 7천 3백만달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2년도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제품(6천 9백만달러), 석제품

(1천 2백만달러), 전자제품(1백만달러) 등이다. 이들 3개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독일 수입규모는 1990년 5천만달러에서 1993년 4천 7백만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독일이 북한의 주요 기계류 공급국이었으나 최근 북한이 기계류 수입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1992년의 경우 농업용기계(1천 9백만달러), 기타 기계류(1천 1백만달러), 전자제품(6백만달러), 수송기계(6백만 달러), 섬유(2백만달러) 등이다. 이상 5개 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5 홍 콩

북한의 홍콩에 대한 교역규모는 1991년 1억 6천만달러에서 1993년 1억 1천만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교역규모 감소는 주로 홍콩의 대북한 재수출 규모의 축소에 의한 것이다. 북한은 홍콩과의 교역에 있어 커다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홍콩을 중개무역의 주요 수입창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출규모는 1991년 4천만달러, 1993년 3천만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1993년도 주요 수출 품목은 과일·채소 등 농산물(7백만 달러), 의류(3백만달러), 전자제품(3백만달러), 섬유사(3백만달러) 등이다. 수입규모는 1991년 1억 2천만달러, 1993년 8천만달러 수준이다. 주요 수입품은 섬유(2천 2백만달러), 자동차(1천 2백만달러), 잎담배 및 담배(6백만달러), 기타 잡제품(1천 8백만달러) 등이다.

6. 북한의 교역 전망

최근 북한의 교역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역선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교역선은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 전통적 우호국들로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전에는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70%, 아시아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30% 정도의 비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3년도 북한의 지역별 교역 의존도는 아시아지역 68.3%, 유럽지역 28.8%를 나타내고 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양주 국가들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교역선 변화는 교역규모의 축소와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의 교역규모는 1990년에 비해 20%나 감소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급자족을 우선으로 하고 과부족분을 호혜평등과 有無相通의 원칙에 따라 교역한다. 그러나 북한의 교역규모 축소는 자급자족 경제의 실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따른 기존의 교역체계 붕괴와 북한의 생산력 저하에 기인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의 누증도 북한의 대외무역의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누적된 대외채무는 GNP의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제 신용도는 저하되고

외환을 대부받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심각한 외환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부족과 외환부족의 전형적 "two-gap"형[1] 성장저해 요인을 안고 있다. 식량의 부족은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이며 이는 수입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식량난[2]을 겪고 있는 북한은 식량 수입을 위한 외환이 부족하여 식량부족과 외환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만성적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에 의해서 식량수입에 필요한 정도의 외화는 보충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자본재, 원자재 등의 수입과 식량 수입이 경합되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교역선의 다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교역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역인 아시아에 있어서 북한의 교역은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정치적으로 친북 성향을 띤 일본의 조총련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과의 교역이 아시아지역 전체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편중현상과 경제적 동기 이외의 정치적, 이념적 동기가 결합된 형태의 교역방식은 북한의 교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 교역에 있어서 신용도와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자율성 인정 미흡 등으로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합영기업, 위탁가공 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 정치논리에 따른 비경제적 제약, 자율성 인정 미흡 사례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가공, 합영기업 등에 대한 관계자 입국 불허, 제품인도 지연, 대금지불 지연 등 투자자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남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에 있어서도 계약의 일방적 파기 및 불이행, 구상무역에 대한 물품인도 지연 및 미지불 등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사례가 많다.

이상에서 논의된 북한의 교역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교역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정치적, 이념적 측면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1980년대에 소련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현재의 35% 수준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원자재(특히 철강, 시멘트 등) 수입수요의 증가는 북한의 수출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에너지, 식량, 생필품 부족에 따른 대중국 수입수요의 증가로 북한과 중국의 교

[1]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식량과 외환의 초과수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의 예는 Abbort, P.C. "Foreign Exchange Constraints to Trade and Development," USDA, ERS, Foreign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209.

[2] 김운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역은 확대될 요인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현상은 수출주도형,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내지향적, 자급자족적 경제정책은 식량 등 생필품 자급의 실패, 부존자원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급자족적 경제의 실현은 국내에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국내 수요가 존재하여야만 성공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 및 에너지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재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여기에 소요될 외화를 획득하는 데에 경제력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이는 수출증대를 위한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최근 교역현황을 보면 노동집약산업(예, 섬유, 임가공업 등)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고 광산물(석타, 철광석, 아연 등)과 각종 원료제품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어 1960년대초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실시 초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누적되는 외채와 무역수지 적자도 북한을 대외지향적, 수출중시형, 경제정책 실시로 유도할 것이다. 필요한 식량, 에너지 등 생필품을 외환부족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그 타개책이 수출증대에 있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변경무역과 중계무역의 증대를 전망할 수 있다. 200만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 지방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중고자동차, 생필품, 식량 등의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경직된 수입제도에 따라 많은 품목들의 수입이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중국·러시아 3국의 공식·비공식적 국경무역과 북한의 중계무역 형태는 증가할 전망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교역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은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발전 정도, 부존자원의 차이 등 교역 증대 요인이 크다. 또한 지역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소비행태의 유사성 등 교역 및 교류 활성화 요인으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량 증가 추세와 함께 북한은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등 경제개방화와 교역기반시설 확충 및 교역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교역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은 증대될 전망이다.

다섯째, 남북한 거래의 확대가 예상된다. 남북한의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거래수지 흑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거래는 북한측의 주요 회화획득 수단이 되고 있어 북한측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 왔다. 그동안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해온 남북한간의 거래는 북·미회담 타결 등 정치적 환경이 호전되고 있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지역에 직접투자를 희망하고 북한도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물적교류는 물론 자본과 인적교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농림수산부문에 있어서는 한약

재, 건조채소, 어류 등 북한의 주요 반출품이 남한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출선이 없으며, 남한에서는 민족적 정서까지 연결되어 향후 중국산에 대한 대체재로 성장할 전망이다. 북한의 식량수입은 지속될 것이며 미곡 등 일부 식량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될 가능성도 크다.

여섯째, 미국 및 대만에 대한 교역규모가 증대될 전망이다. 대만과의 교역은 1989년 대만 정부의 대북한 직교역 허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만은 수산물 등 1차산품을 수입하고 생활용 잡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역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교역 규모는 증대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많은 희망을 걸어왔으며 1994년의 북·미협상 타결로 양국간의 교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1950년에 제정된 적성국과의 교역에 관한 법률로 북한과 실질적인 교역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1994년 북·미핵협상의 타결로 외교관계의 개선을 물론 교역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농산물의 대북한 수출과 북한 섬유류의 대미국 수출 등이 북·미교역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참 고 문 헌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방현안 레포트 94-4호, 1994. 8

朴 進, 「北韓의 貿易推移와 展望」, 북한경제 국제학술회의(전환기의 북한경제) 발표논문, KDI, 한국경제신문사, 1994. 10. 17.

北韓硏究所, 「北韓總覽」, 1994. 5.

韓國貿易協會, 「南北交易 主要搬入品目分析」, 진흥 92-10, 1992.5.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交易 有望品目」, 진흥 91-16, 1991. 8.

ン連對外經濟關係 經濟管理總局, 「ン連の外國貿易, 各年度.

Abbott, P.C. "Foreign Exchange Constraints to Trade and Development," USDA, ERS, Foreign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209.